

# 고흥군, 전국 최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혁신밸리 등 포함 64ha  
고흥형 스마트팜 마중물  
"진입장벽 낮출 것 기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포함한 64ha 규모의 전국 최대 스마트팜 원예단지 가 육성될 예정이다.

25일 고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에 선정돼, 고흥 스마트팜 원예단지가 육성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7월 농식품부의 스마트농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처음 시작됐다. 공모에는 스마트팜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들이 참여했으며, 고흥군은 지난 1월부터 치열한 준비 끝에 농식품부의 1차 대면 평가와 2차 현장평가 등을 거쳐 육성지구 지리지정형 분야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64ha로 유일하게 선정됐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경.

고흥군 제공

스마트팜 원예단지 육성지구는 청년 농업인의 유입 확대와 농업법인 중심의 스마트팜 및 가공·유통시설 등 전후방산업을 집적화해 지역단위 스마트팜 확산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육성지구에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33ha)와 농식품부로부터 이미 선정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20ha), 스마트원예단지(11ha)가 포함됨에 따라 약 70만평 규모의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

팜'이 단계별로 확장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교육·실습·창업'의 윈스톱 지역기반 스마트농업 시스템 구축은 물론, 스마트농업법을 통한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입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앞서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2일 농식품부 현장평가에서 직접 평가위원들과 만나 고흥군의 미래 전략 중 하나인 '고흥

형 스마트팜 확대'를 강조, 이번 육성지구 지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문금주 지역구 국회의원도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힘을 보탤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64ha 규모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돼 매우 기쁘다"며 "2029년까지 약 70만평의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해 1000여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고흥을 대한민국 스마트팜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은 고흥형 스마트팜 확대 가능성을 여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지역 내 청년 농업인들과 농업법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손쉽게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2025년 농촌진흥시범사업 접수  
장흥군, 내년 1월24일까지

장흥군은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을 신청 접수를 내년 1월2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5일 장흥군에 따르면 농촌진흥시범사업은 생활자원, 작물연구, 원예연구 등 총 3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총 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농촌체험농장 기반조성 및 육성시범 △노동력 절감 비 직파 재배 단지 조성 △메밀 대규모 재배 전 과정 일관기계화 기술 시범 △감자 가을 재배 안정 생산을 위한 통씨감자 활용 기술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보급 △대체제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형 스마트팜 지원 시범 등이다.

장흥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2개 이상 사업 중복 신청, 장흥군 농업인 소득 증대용자금 연체자 및 보증인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선정 시 제외된다.

농촌진흥시범사업은 26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장흥군청 및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2025년 농촌진흥시범사업 신청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별 현지심사 후 장흥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장흥=김전환 기자

'청년 삶 보장' 맞춤형 지원  
순천시,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

순천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누리며 미래세대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5년 청년 세대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시는 취업, 결혼,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및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순천 거주 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가액 3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18세~45세 무주택 근로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해 취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사업도 지원한다.

순천 거주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생애 1회 지급하고, 전남도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및 일하는 순천 청년 희망통장을 통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근로자·사업자에 순천시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공동 적립, 만기 시 적립금과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순천 거주 19세~28세 청년들에게 최대 25만원 상당의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 경험 확대 및 자기 계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삶 전반에 걸친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장흥군 장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0일 '독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장흥군 제공

## 장흥읍, '독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장흥군 장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독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독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생신 음식을 직접 만들고 관내 파리

바게뜨에서 케이크, 님프만이불커튼에서 이불 세트, 롯데칠성장흥대리점에서 식혜 음료 등을 정기적으로 후원받아 생신상을 차려드리며 지역 독거 어르신의 안부와 건강을 살피고 있다.

이달 생일을 맞이한 어르신은 "자식들

이 멀리서 살아 생일상을 챙겨 줄 사람이 없었는데, 직접 찾아와 노래도 불러 주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줘서 행복한 생일을 보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문병욱 장흥읍장은 "매월 하는 일이지만 어르신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 광양시,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본격 운영

준공식 성황리 개최  
스마트온실 임대 등

광양시는 지난 24일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광양 시의회 의원, 농업인단체장, 청년농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조성하고 광양시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에게 3년 동안 스마트팜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시는 청년농업인이 충분한 경영 실습을 쌓고 광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달 30일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2동(당당 면적 1216㎡) 공사를 완료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광양시에 주소를 둔 2명을 임차인으로 선정했다.

이날 준공식은 개회식, 테이퍼커팅, 시설 순회, 청년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 및 시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스마트팜을 신규 임차한 청년농업인들의 성공을 응원하기 위해 지

난해년부터 올해까지 스마트팜 관련 지원사업을 받은 6명의 청년농업인을 소개하고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전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광양시는 올해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보급(1개소)을 시작으로 2025년 부지매입을 통해 2026년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까지 총 6개소를 조성해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에 힘을 예견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우리 청년들이 친환경농업대학 과정을 통해 농업역량을 강화하고 장흥미디어센터에서 홍보·마케팅 힘을 키워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보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등 모집  
내년 2월5일까지

보성군은 2025년 2월5일까지 '202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197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자)으로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경력 10년 이하인 농업인이다.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자) 중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인 경우다.

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절차는 서면 및 면접 심사를 통해 내년 3월 말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 후계농에게는 영농경력에 따라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영농정착금을 최대 3년간 차등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청년 농업인이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단, 일반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 창업형 후계농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및 시스템 관련 사항은 콜센터(1670-0255)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사업 지침이나 선발 관련 사항은 보성군 누리집이나 농축산과 농정팀(061-850-5384)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성=양종수 기자